

서사라 목사 간증 관련, 신학사상 간담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북구) 서울동노회(노회장 강영철 목사)가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에 대한 신학사상 간담회를 21일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신학자는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서요한 교수(전 총신대), 서영근 교수(전 한양대 특임), 조상열 교수(전 평택대), 강영철 교수(대신대)다. 이들은 서사라 목사의 신학 사상에 제기됐던 의문점에 답한 뒤 선언문을 채택했다.

권호덕 교수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에 대해 "서 목사의 하나님의 인 사역은 서사라 목사가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이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 9장 1-6절에서 나타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해 애통하며 무는 자의 이마에 표(히브리어로 타우)를 붙이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다.

서요한 교수는 "1970-80년대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때에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독특한 단어인 직통계사라는 단어와 현재의 영적 체험에 속하는 천국·지옥 간증 및 예언 등이 다르다"며 "현재 우리는 직통계사라는 단어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



서사라 목사(앞줄 맨 왼쪽부터 4번째)와 신학자 및 서울동노회 소속 목사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예장 대신 서울동노회 제공

과의 영적 교통 혹은 교제 혹은 묵상이라는 단어 등으로 쓰는 것이 더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성경 외의 또 다른 계시를 받지 위함이 아니"라며 "오려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한 영적으로 그분과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함"이라고 했다.

서영근 교수는 "서사라 목사의 간증(2013년 12월과 2014년 4월)에서 곧 한국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7년

이 지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점이 거짓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곧'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곧'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이 '곧'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 개념으로 주님께서 서사라 목사의 천상의 영적 여정 중에 주신 말씀"이라며 "우리 인간의 시간(크로노스) 개념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Soon) 오

리라 하셨으나 지금껏 안 오신 것은 '속히' 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때, 시간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서사라 목사의 지옥 편에서 '마귀 부하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집행하고 있다'고 기록된 것이 비성경적이며 거짓간증"이라는 비판에 대해 베드로후서 2:4, 베드로후서 2:9을 인용하며 "여기서 '심판 때'라는 것은 '백 보좌 심판 때'

를 말하며 나중에 이 지옥(음부)도 불 못에 던져진다(계 20: 14)"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영철 교수는 "목회자 자신이나 성도들의 영적 체험이나 간증은 하나님의 다양성이며 무한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상이며 객관성을 띄기 위하여서는 그 체험이 성경적이어야 하며 또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서사라 목사(S)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오(無誤)한 말씀임을 믿는다. ▲서사라 목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천국 지옥에 대한 서사라 목사의 증거는 개인의 체험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정인이 서사라 목사에 대한 개인적 사건과 주장을 무분별하게 공표하기보다 신학 검증 및 토론이 필요할 시 신학 포럼이나 학술연구논문을 통하여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GMU, 한인 신학교 최초 랩탑 임대 서비스 시행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코비드19로 모든 강의가 실시간 및 통신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2021 봄학기부터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랩탑 임대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가능한 조건은 GMU 대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온라인 수업

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마감은 2월 2일 까지다.

이와 관련하여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랩탑을 준비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

었는데, 한인 신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임대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GMU는 임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 학기마다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학교가 정한 규정에 동의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 학교에서 픽업할 수 있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총장 최규남 박사

다. 임대 기간은 한 학기다.

한편 GMU는 북음주의 신학교로 대학 과정으로 신학사(BA), 상담학 학사(BACC) 학위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에는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C), 기독교 교육학석사(MACE),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석사(M.DIV)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박사(DMiss) 학위와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GMU는 현재 2021년 봄학기 입학원서를 받고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이며, admissions@gm.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에서 라이브 채팅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사순절 금식 나눔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 전해요”



월드쉐어 지원으로 열린 아이티 소망학교 성탄절 파티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사순절을 맞아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Sharing Bread for Soul)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는 올해 2월 17일(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하루한끼를 금식하며, 하루 3달 러씩 40일로 계산해 금식하며 모은 120달러로 LA 지역 노숙자 및 빈민 국 아동들과 빵을 나누는 운동이다. 강태광 목사는 "사순절 금식 나눔

에 100개 교회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하는 빵은 배고 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영혼을 살리는 빵이 될 것"이라며 나눔 참여를 요청했다.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에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전화 323-578-7933 혹은 이메일 chap1207@hot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월드쉐어 USA는 2021년 사순절에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Sharing Bread for Soul: SB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교회나 성도 개인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하면 그 금식한 식사비(83×40일)로 빈민국 아동들과 가난한 그리고 LA 지역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빵)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전화(323-578-7933), 카톡(ID: Chakang1), 혹은 이메일(chap1207@hotmail.com)로 참가를 통보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실천하며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 참가의사를 월드쉐어 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의 참가를 관망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문의: (323)578-7933 후원: ChaeonUSA 조선일부

“크리스천 경영의 기초” GMU 온라인 공개 강의 오픈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

제임스 구 교수의 주교재인 시장에서의 기독교경영전략- 성경적 기초와 비즈니스 선교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as Mission (Korean Edition)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

책이 필요한 경우 아마존 사이트(https://www.amazon.com//dp/1539415236)에서 개별 구입 가능하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GMU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매년 3-4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했다.

한편 GMU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다.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학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으로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

교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다. 또한 유학생 I-20 비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 무상학비보조(Pell, Cal Grant), 100% 통신통교육, 영어트랙이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이며, admissions@gmu.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할 수 있다.

- 주요 강의 내용
- 1강 경영의 성경적 원리
 - 2강 기독교 경영 전략
 - 3강 분야별 성경적 경영 전략
 - 4강 성경적 마케팅 전략
 - 5강 성경적 광고 전략
 - 6강 성경적 회계 전략
 - 7강 조직행동과 성경적 원리
 - 8강 인적자원과 성경적 원리
 - 9강 정보시스템, 운동과학과 성경적 원리
 - 10강 보험, 투자와 성경적 원리
 - 11강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
 - 12강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선교
 - 13강 비즈니스 와 선교
 - 14강 비즈니스선교 전략
 - 15강 결론 및 발표

HYM청년연합회 더글라스 김 목사 코로나19로 별세



코로나19로 인한 잇따른 소천 소식에 남가주 교계에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미주성시화운동을 창립하고 KCCC 이사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82) 장로, 18일 음악 사역으로 남가주 교계를 섬겨온 전재학(83) 목사가 코로나 19로 소천받는데 이어 19일에는 20년 넘게 남가주에서 청년 사역을 섬겨온 HYM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라스 김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62세.

특히 더글라스 김 목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주 전 코로나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글라스 김 목사는 한어권 청년들의 복음화를 외치며 1999년

9월 HYM청년연합회를 시작해 매년 2회씩 진행해왔다. HYM 집회를 거쳐간 청년들만도 2만여 명에 이른다.

청년 선교에 헌신했던 그는 개교회의 부흥을 넘어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들이 한인교회의 미래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수많은 청년들이 HYM청년연합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주께 드렸다. 인천 송의교회 담임 목사인 이선묵 목사는 HYM찬양인도자 4년 넘게 사역했고, 예수전도단 찬양인도자 윤주형 목사, 분당 할렐루야 교회 청장년 뉴웨이브 공동체를 담당하는 안만기 목사도 HYM을 섬겼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인 가정 폭력 피해자 99% 한인 1세 여성, 83% 영어구사 어려워

한인가정상담소, 2020년 서비스 통계 발표

한인 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20일,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서비스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서비스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99%가 한인 이주 1세 여성이었으며, 피해자의 83%가 영어구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인들의 상담 내용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26%로 가장 많았고 불안증이 18%, 우울증 17%, 부모나 자녀 문제가 9%,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려움이 4% 등 이었다. 상담을 요청한 한인들의 83%가 저소득층

혹은 수입이 없었으며 37%가 서류 미비자였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의 서비스 통계를 살펴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직원 6명, 정신과 의사 3명, 수련 인턴 3명, 봉사자 2명)은 총 314 명의 심리상담 케이스를 통해 종합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평균 상담치료기간은 3.6개월에서 7.7개월, 대기 기간은 1개월에서 2.5 개월이었다. 총 26번의 워크숍을 통해 807명의 한인이 심리상담 세미나에 참여했다.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직원8명, 자원봉사자3명)은 153명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정폭력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총 318건의 가정폭력 케



한인가정상담소 상담원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스를 핫라인으로 도움 주었다. 6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했고, 216명의 한인 종교지도자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Permanent housing)를 제공했고, 21명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였고, 4명의 피해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명의 클라이언트가 개인사업을 통해 부가 수입이 발생하도록 도왔다.

위탁가정 동지찾기 프로그램(직원 9명, 인턴 2명)은 23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위탁되었고, 7명의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했으며, 1명이 입양되고 1명이 진행 중이다. 총 69가정이 위탁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9가정이 위

탁가정으로 승인 받았다. 144명이 워크숍 및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7번의 부모교육에 총 132명이 참석하였다. 예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40명의 어린이와 56명의 부모가 지원을 받았으며, 총 482건의 위탁가정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고, 이중 91건이 입양관련이다.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직원2명, 인턴 1명)은 현재 어린이집 150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총 4만4천건 (조식,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저녁)의 영양이 있는 음식이 제공되었다. 유치원은 현재 34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총 40개중 코로나로 인해 6곳 중단) 총 44만 3천회의 음식이 제공됐다.

김동욱 기자

K-POP 전도사 USC 이해진 교수 모교 한남대 방문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대학교 이해진 교수

강의를 하게 되면서 K-POP을 가르치게 됐다.

그는 "K-POP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미국 현지에서 몸소 실감하고 있다"며 "미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K-POP과 한국영화 등을 찾아 소비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K-POP에 대한 책과 논문이 한국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학문적 정리가 미흡하다"며 "이론은 훌륭하지만 사례가 오래된 것도 많아 이를 영문으로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K-POP에 대한 관심도는 물론 용어의 어원, 의미, 역사, 산업까지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K-POP 연구에 국한되기 보다는 AI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실제 인공지능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문화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흔한 풍경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갖고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미국 할리우드 스타와 감독을 대거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한 USC(서던캘리포니아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K-POP'을 정식과목으로 개설해 강의하고 있는 이해진 교수(43)가 지난 15일 모교인 한남대를 방문했다. 이 교수는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졸업생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강사로 시작해 2017년 USC의 'Communication and Journalism(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K-pop'을 정식과목으로 개설해 강의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남대 영문과 재학 당시 미국의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졸업 후 유학의 목표를 세웠다. 이후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명문대학 교수의 꿈을 이뤘다.

이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광이었다. 대학시절 혼자서 하루에도 몇 편씩 영화감상을 즐기며, 영화관련 잡지와 책을 섭렵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와 미디어 비평 등으로 관심이 이어졌고, USC에서 대중문화 분야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작곡가 전재학 목사 별세



LA 사랑의교회에서 특별찬양을 부르는 전재학 목사 ©LA 사랑의교회

전재학 목사가 코로나 19로 투병하다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83세.

장례예배는 오는 30일(토) 오전 11시, 풍성교회(담당 박효우 목사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ID 2132726031 PASSWORD: 838851) 95년 광으로 이민 온 전재학

목사는 찬양 사역과 복음 성가 작곡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는 이영화 집사가 불러 히트한 '실비 오는 소리' (79년)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81년)를 작곡했으며, TV 드라마 '미련' '애처의 일기' 등의 주제곡을 만들었다. 또한 LA에서 예술인 동호회 교회를 담임했으며, 한국적인 복음성이 작곡을 위해 힘써왔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목사(성신대 영예교수), 이영희목사(예수전도단), 송영목사(복음전도대), 권준목사(유일대), 신정현목사(복음전도대), 유관지목사(동일대), 김인식목사(KCC공로대)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영)과 수련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영적이고, 우리예언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공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지하숙소복원과 북녘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슬한 입재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1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순교의 땅에서 부는 부흥운동(3)”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의 졸업생들이 22회에 걸쳐 300명 이상이 배출되면서 멕시코 전역에선 지금 교회 개척 운동이 일고 있다. 멕시코 개신교회 부흥운동의 주 사역지가 될 남부 치아파스에서 일어나는 교회 개척 상황을 알리겠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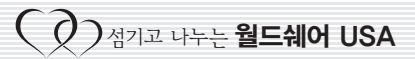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남부 치아파스 주 안에 속한 각 노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이다. 노회장과 담임목사가 추천한 학생들이기에 그들의 신앙과 사명감은 일차 검증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지난 24년간의 학교 운영 가운데서는 생활의 품행 관계로 부득이 정학 조치를 받고 한 학기나 두 학기를 벌을 받고 다시 복학하여 졸업한 학생들도 몇 명 있다. 그중 일부는 그만 목회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60명의 학생들을 4년 내내 함축시키면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로 배출해내는 사역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학생들은 미래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맡은 사명이 큼을 알고 실로 각고의 노력을 하여 마침내 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로 멕시코 장로교단과 산하 교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요 큰 감사의 제목이다. 현재 우리 학교 재학생 중에는 부모 세대의 뒤를 이어 자녀들이 2대째 우리 신학교 학생이 된 이들이 여러 명 있다. 그중 한 명이 치아파스 오요시꼬 지역의 만나교회 엘리야 장로의 자제이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우리 학교 출신이다. 남부 치아파스 지역은 멕시코 원주민 여러 종족들이 주로 각기 모여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매우 배타적이다. 과거 스페인과 미국 등의 식민지 정책에 피해와 상처를 받았던 원주민의 후손들이기에 그들은 자치적 방어에 강할 수밖에 없었다.

복음을 들고 들어 갔다. 지금은 원로장로로 계신 하비에르 장로님이다. 엘리야 장로는 바로 그의 큰 아들이다. 하비에르 가족이 그 마을에 들어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 원주민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하비에르 장로의 가족들을 모두 다 근처 강으로 잡아 강물로 던져 넣었다. 다른 가족들은 가까스로 강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렸던 작은 아들이 끌내 못 나오고 시신도 찾지 못하는 순교가 일어났다. 그런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 굶지 않고 개척한 교회가 만나교회이다. 만나교회는 현재 원주민 교인들이 800명에 이른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여전히 일어나는 곳이 멕시코이기도 하다.

오요시꼬 지역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검은 정글' 지역으로 우리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속속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개척자의 가정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교인들은 생겼는데 예배처소가 없는 곳에 우리 신학교를 후원하던 한국과 미주의 교회들이 임원석 선교사의 안내에 따라 그들에게 예배당을 헌당해 주기 시작했다. 그 사역이 지금 20년째 이어가면서 어느덧 70개의 예배처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3개의 예배당 건축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교의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개척자인 임 선교사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건축지원과 개척교회 방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신학교는 실제로 현재 멕시코 개척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세워지고 있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교지이다. 그들이 가서 개척하는 교회의 예배당들 단 한 곳도 사역이 멈추지 않고 부흥의 중심에서 있는 교회들이 되었다. 필자는 감히 말한다. 우리의 사역은 멕시코에 다시 불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의 비전으로 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 곧 “Missio Dei”임을 확신한다. 오늘도 총력을 기울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치아파스 지역은 산간과 정글지역이 90퍼센트다. 교통의 어려움도 커서 산간지역은 반정부군 군사 자치권을 행사하는 곳들이 많다. 그런 반정부 원주민들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오요시꼬이다. 그곳 마을들은 아직도 마을 입구에 큰 간판을 걸어 목사나 장로, 전도사 등이 마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며, 발각되면 구금 또는 추방한다는 글들을 써 두었다. 그런 곳에 약 20여 년 전 한 그리스도인 가정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6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바리새인으로 성장”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뼈대(?)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가 가말리엘 문하생과 바리새인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가 다른 종파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종교권력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율법 준행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모세와 선지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놓쳤는데, David Payne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인간들이 만든 명령, 자신들의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구전(Oral Law)”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인간의 칭찬과 박수를 지나치게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출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지배를 당한 후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타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에서 제우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구약성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을 모독하는 만행이었습니다. 이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가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족’이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일을 추진합니다. 왕이 대제사장을 겸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전통을 지키려는 귀족들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을 배출했던 사독 계열 사제 가문이 아니었고, 왕이 대제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중심으로 신앙전통을 세우기 위해 바리새파가 형성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루쉬(פָּרוּשִׁי)’입니다. 파루쉬는 ‘구분되다’라는 의미로 이방인과 부정교 타락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며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바리새 운동은 경건운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사회는 바리새인을 칭송합니다. 그들의 경건과 열정에 상당한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경건한 삶이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요세푸스의 역사자료입니다. 바리새인인 요세푸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남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수가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Men-pleasers)’들’이라고 혹평합니다. 바리새파는 헬라 스토의 학파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모방했다

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간 예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 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회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 셋째,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다.” 등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도모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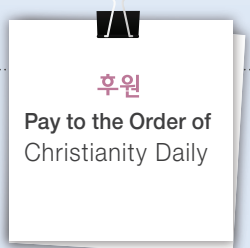
바리새인의 신앙자료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읽고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위경(Apocrypha)인 ‘솔로몬의 시편(Psalms of Solomon)’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록된 바울서가 솔로몬의 시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세기 말엽 이전에 솔로몬의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편이 그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은 경건한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의 신앙을 솔로몬의 시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 사이비 같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안식일 규례와 정결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했다.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하였습니다.

미숙한 젊은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미숙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 성숙해 지니 율법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크리스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바리새적인 경건과 열정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만난 바리새인, 변화된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정과 경건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주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NPO로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시민정부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견해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의 정치적 책임 (2)

칼빈은 『기독교강요』(1559) 4권 20장에서 시민정부의 역할에 대해 신학적인 견해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칼빈은 시민정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중적인 통치기관의 둘째 기관으로서 시민사회의 정의와 사회전체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했기에 여덟 가지 주제들을 다뤘다.

1. 정부들의 구별 (IV.20.1-2)
2. 군주: 법률의 수호자와 집행자 (IV.20.3)
3. 군주들의 업무들, 군주들의 취임 (IV.20.3-8)
4. 군주들의 특권들과 책무들 (IV.20.9-13)
5. 법률의 규칙 (IV.20.14-16)
6. 법정들 (IV.20.17-21)
7. 시민들로부터의 복종과 경의 (IV.20.22-29)
8. 법률적인 수단들 (IV.20.30-32)

이상에서 칼빈이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핵심으로 다룬 주제들을 압축하면 세 가지 사항이다: 첫째는 법의 수호자로서의 군주, 둘째는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률, 셋째는 합당한 판단력을 가진 시민들이다. 특히 칼빈은 1559년 이후로 능동적인 저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칼빈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던 제세레과와 달리, 정치적인 직위를 가진 자들이 시민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세속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라고 보았고(IV.20.6), 가장 거룩하고도 명예로운 소명이라고 해석했다(IV.20.25). 칼빈주의는 시민 정부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정치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로 알려진 "갈리칸 고백서"(Confessio Gallicana)가 프랑스 개신교회들의 모임에서 채택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칼빈의 신학이었다. 칼빈은 배후에서 이 고백서의 형성에 깊이 간여하였다. 이 중요한 프랑스 개혁교회의 고백서 마지막 항목, 35조에서는 세상의 정부와 권세에 대한 칼빈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어져 있다. 그 무렵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1547-1559 재위)가 개신교회를 탄압하던 절정기였다. 35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방지하시고자 법률과 통치자들을 제정하셨음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왕국들과 국가들과 다른 군주들을 설립하게 하였고, 권세자들의 손에 같은

들려주셨다(마 17:24-27, 롬 12:1 이하, 벧전 2:13-14). 군주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들에 저항하는 범죄들을 진압하라는 것이다. 권세자들은 합당하고도 거룩하게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 시민들은 국가의 합당한 법질서에 순응해야만 하고, 불신자가 다스리는 경우에도 허용해야만 한다.

칼빈의 세속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벨직 신앙고백서"(1561)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칼빈의 정치적 사상은 교회가 시민정부와 국왕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핵심적인 논지가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합법적인 정부와 독재를 구분하면서, 고전적인 공화정 체제(republicanism)를 지지했다. 한사람의 군주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고문이나 조연자들이 왕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창세기 49장 주석에서, 바로 왕을 돕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요셉을 통해서 선행이 시행되었고,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적인 풍요가 준비되었다고 보았다. 칼빈이 공화정치를 선호했던 이유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정의와 질서를 지켜나가기에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재판관을 세울 때에, 모세가 직접 임명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선택을 받도록 했음에 주목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에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고 하였다.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신 1:4-16). 칼빈은 히브리인들의 공화국에서는 고전적인 공화정, 선출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단일 군주 바로 왕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지파별로 장로들을 선출하게 하는 이드로의 조언이야말로, 공화정 체제의 서막이라고 보았다.

1561년에 칼빈은 사무엘상 8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군주의 위협성과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의 한계, 민간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등을 언급했다. 사무엘상 8장의

상황을 보면, 군왕을 선출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지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으며 권위를 남용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가서 5장 5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통치자들이 선출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제시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통치자들이나 다름이 없는 역할을 수행했다. 군주의 폭정과 혼란스러운 자유방임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민들의 선출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칼빈의 합법적인 저항이론은 그의 생애 후반에 나왔다. 세상의 군주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칼빈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qui ubi sacrum os aperuit),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만 한다.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확고하게 선포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권한을 실행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보다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5:29)고 강변했다.

칼빈의 출애굽기 주석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으려는 바로 왕이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살인명령을 내렸음에도, 히브리 산파들이 거부했던 것이 옳다고 하였다. 칼빈은 세상의 군왕에게 생명을 해치도록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칼빈은 군주의 저급한 정치적 선택은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빈이 저항의 신학이라든가, 이론을 체계화해서 강조했었던가? 사실, 칼빈은 프랑스 종교전쟁의 상황에서, 군주의 권세를 뒤엎으려는 전쟁을 가능한 자제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바사의 학살(1562년)이 일어나자, 콩드의 군주, 루이 1세 부르봉 왕이 시작한 위그노들의 봉기를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프랑스 국왕이 된 후에는 전혀 입장을 바꾸고 말았다. 부르봉은 파리의 왕궁에 머물면서 완전히 개신교 신앙을 포기해버렸다. 마치 로마시대의 줄리안 황제처럼 한 때에는 기독교 신자였으나, 후에는 이를 반복해 버린 배교자와 다를 바 없었다.



장 칼뱅의 석판화, 추정 1830년 ©wikipedia

칼빈의 신학과 정치사상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청교도들에게로 서서히 확산되어나가면서,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 볼 수 없던 정치적 정서와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칼빈의 신학과 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 교회들이 정착된 지역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칼빈이 남긴 시민 정부와 그 통치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계시하시는 수단들을 주셨음에 유의하고, 인간 이성과 역사, 전통, 경험에 기초한 통치원리들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정당성을 의심하고 시험해봐야 하는 인간의 선(a distrust of human goodness)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

셋째, 다수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라. 단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통치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지역 지도자들은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인 협의 과정이 없다면, 상위 계급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섯째,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 다양한 대표자들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여섯째, 통치자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시민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더 넓은 기관들로부터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러한 칼빈의 정치적인 조언들이 다양하게 역사 속에서 기여함으로써, 근대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개혁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선거를 통해서 시민 정부를 평가하는 장치를 확고하게 수립하였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adm@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바이든 성차별 금지 행정명령은 신앙인에 대한 위협”

미 가족연구회 토니 퍼킨스 회장 “사실상 신앙단체 겨냥”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 취임 후 그가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이다.

이 명령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선호하는 대명사(그녀를 포함한)’를 고를 수 있도록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권고이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성별의)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 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퍼킨스 미국가족연구위원회 총재 ©페이스북 캡처

퍼킨스는 “이제, 생물학적 현실(타고난 성)과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받거나 심지어 정부와의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 보

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이 소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 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킨스는 “과학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첫 날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 단체들은 지난 11월 대선 직후부터 바이든 캠프에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안해 왔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발표한 권고안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 대학의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신앙에 기반한 대학에 한해서는, 성차별 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신앙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LGBT인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교회 박해 대비해야”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촉구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자”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텍사스 주 달라스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 담임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드린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능력이 규제받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든 도덕적 구속을 벗어던지고 사회가 붕괴되며 강포한 시대가 올 것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벗어던지고 있다. 성 유동성, 동성결혼, 제한 없는 낙태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벗어던진 사회의 결과”라면서 “한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축하받을 일’이 되었다. 만약 교회가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은 축하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비난하는 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는 마찰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영상 캡처

을 가져온다. 사회가 축하하는 일을 교회가 비난할 때마다 압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장려할 것이고, 결혼에 대한 열린 시각을 축하하는 것을 거부하는 단체들을 따라갈 것이다. 또 어떤 이유로든 ‘태아 살인’을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축하하

고, 이를 교회가 비난하게 될 때 마찰이 생길 것이고 압박이 있으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인물 중 한 명인 제프리스 목사는 지난 6일 미 의회를 습격한 시위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은 최대치의 범으로 기소되어야 할 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을 한 것이며, 난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비난한

다”면서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혼란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고 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일단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한다. 곧 올 것”이라며 “분명히 교회는 박해에 대항해야 하지만, ‘고난의 시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희망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파도가 출렁이는 바

다를 향해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어떤 선거도 이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교에 앞서 제프리스 목사는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천국에서는 선거 결과로 인한 공황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완전한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저항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통치 당국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첫번째 책임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조 바이든을 위해, 카말라 해리스를 위해, 선출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어떤 선거 결과도 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 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전문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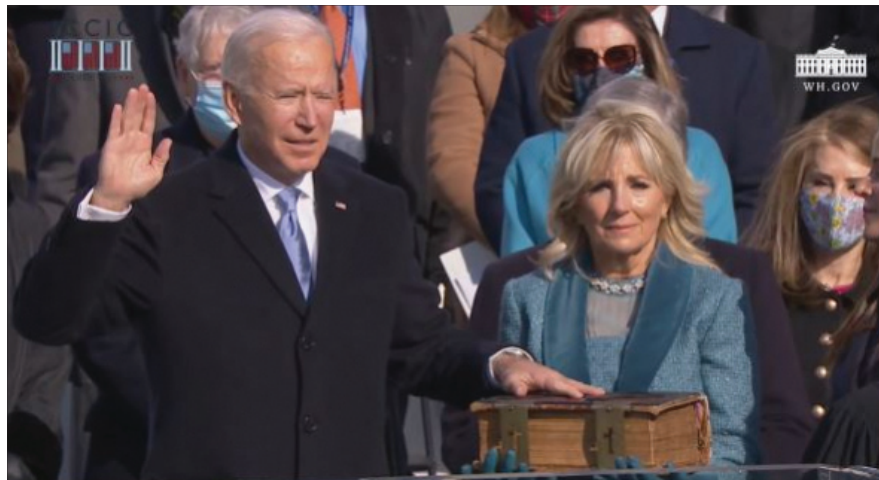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美 교계 지도자들, 바이든 취임에 축하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 ©백악관 영상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 46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자 교계 지도자들은 차기 정부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남침례교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 위원장인 러셀 무어 목사는 신임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 축복, 지혜, 건강,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수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했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취임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독교인들이 취임식에 대응해 폭력 시위를 하지 말자”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워싱턴 D.C.와 전국의 주도에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기도의 날’이 되게 하길 권장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이끌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리는 기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진보적인 기독교 지도자이자 ‘가난한

사람들 캠페인’(Poor People’s Campaign) 공동 의장인 윌리엄 J. 바버 2세(William J. Barber II) 목사는 사회 진보에 대한 넓은 주제를 포함한 견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자비와 정의는 정반대가 아니다. 사실 이것들은 미국 사회의 세 번째 재건을 구축하는 기둥”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워싱턴 국립 대성당(Washington National Cathedral)에서 열리는 취임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았다. 올해는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조언했던 조니 무어 목사는 취임식 직후 바이든 신임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헌신한 수천만 복음주의자들과 나의 기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종교적으로 무관한’ Z세대... 영적 멘토링 갈망

미국 Z세대 대다수는 성경 연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기관과 신뢰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그들의 삶에 시간을 투자해주기를 열망한다고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프링타이드 연구소(Springtide Research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연구인 ‘종교와 청소년 2020’(The State of Religion & Young People 2020)은 1만 건 이상의 설문 조사와 13세에서 25세 사이 청소년과 진행한 150건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 대부분이 성경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12%만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임에 참석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약 40%는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라고 대답하는 등 종교적으로 자신이 ‘무관하다’라고 대답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종교적인 조직에 관여하지 않는 청소년 응답자 가운데 60%가 자신을 ‘영적’(spiritual)이라고 표현했으며 19%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종교 모임에 참석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모든 세대 중 가장 외롭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응답자 중 60%는 “매우 고립되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고 배우고 교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프링타이드 연구소 책임자 조쉬 패커드는 “Z세대의 내면과 외면은 복잡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복잡하다. 젊은 세대가 유대를 형성하고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의식 할 여지없이 지금까

지 존재했던 세대 중 가장 다양한 세대”라고 말했다.

설문 조사에 응한 10명 중 거의 7명(6%)은 “하루에 세 번 혹은 그 이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대화 할 사람이 없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으며, 하루에 한번도 의미있는 상호 작용이 없는 청소년 10명 중 2명(21%)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인 멘토가 한 명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9%는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 멘토가 2명에서 4명이라고 답한 85%의 응답자와 성인 멘토가 5명 이상이라고 답한 91%의 응답자는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는 또한 ‘관계적 권위’를 갈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응답자 중 79%는 “나를 걱정하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에서 어른들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87%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성인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정치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공감적인 대화를 열망하지만, 어른들에게 목살당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대답했다. ‘종교와 청소년 2020’ 연구는 Z세대가 종교와 영성 문제에 접근하는 복잡한 방식을 보여주는 초기 연구라고 CP는 전했다. 바나 그룹이 발표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한 최초의 ‘포스트 크리스천 세대’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회사 벤키에이 발표하든 큰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 중 74%가 “전염병 기간 동안 신앙이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모든 세대 평균인 62% 이상을 차지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어린 2세를 영육하며, 이방이 영육을 치유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서예배(엘리엔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산티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 목)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 (토) 오전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침) (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목)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목)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목)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날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주일 1부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오전 10:00 주일 성경공부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주일 성경공부 목회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주일 성경공부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935-5887 T. (818)937-38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성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북한이 올해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오른 이유는...”



오픈도어즈 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 ©오픈도어즈 USA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가 매년 '세계 기독교 감시(박해) 목록'(World 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는 오픈도어즈 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과 전화로 인터뷰하고 이를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WWL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년째다.

커리 회장은 오픈도어즈가 기독교 박해국 목록을 해마다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사건과 자료들을 기록하고 추적하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종교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성경에 접근해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지,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종교 자유, 특히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개선됐는지 보길 원한다”고 했다.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라는 VOA의 질문에는 우선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적 신앙에 따라 성경이든 다른 책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을 갖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분들은 분명히 현명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는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현재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할 자유가 없다”면서 “

이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가정은 더 행복하고 마약이나 범죄율도 줄어든다. 저는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개방하면 국가에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에 좀 변화가 있었나”라는 VOA 질문에 그는 “북한은 20년 연속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최악인) 1위에 올랐다”며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를 측정하는 모든 면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북한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길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길 원한다”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좋은 주민이 되길 원한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에 대해 말하고 성경을 공부할 권리를 갖길 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잔혹함 때문”이라고 했다.

커리 회장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는 성경을 소지했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의심만으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한다. 매우 열악한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올해에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최악의 국가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포된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그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중 관리들, 기독교 어린이 참여하는 홈스쿨링 가정 급습”

중국 이른비언약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홈스쿨링 가정을 공안과 관리들이 급습했다고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SNS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안, 교육국 공무원, 국가 안보 공무원, 도시 관리 공무원이 14일 오전 이른비언약교회의 홈스쿨링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주택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공안은 이제 주택까지 급습하고 있다. 리앙 형제와 수 치용 자매의 주택 안팎에는 많은 공안들이 있으며 현재 그들은 리앙 형제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고 있다. 기도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지난 2018년 12월 중국 당국은 이른비언약교회를 폐쇄하고 교인과 지도자 자택 문을 허물고 1백명 이상을 체포했다. 차이나에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그 이후로 이 교회 교인들을 계속 괴롭혔다. 이 교회 담임인 왕이 목사는 정권 전복과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에는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들 중 적어도 절반은 미등록 혹은 ‘불법’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CP는 전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인 박해와 관련하여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편, 국제기독교연대(ICC)에 따르면 지

난해 12월 30일에는 산시 성 수도 타이 위안시에서 관리 수십명이 이른비언약교회가 세운 선전 교회를 습격하고 안 안쿠이 목사 사택에서 기독교 서적을 압수하고 설교자와 교인 5명을 구금했다.

당시 관리들은 성경을 공부하던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성가대 예복과 서적을 압수하고 설교자와 여성 교인 5명을 체포했다고 ICC는 밝혔다. 관리들은 이후 여성 교인 5명을 석방했지만 안 목사는 15일 간 구금됐다.

이른비언약교회와 연계로 인해 표적이 되었던 선전 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도 습격 당해 공안으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이 교회 몇몇 교인들이 집에서 온라인 부활절 예배를 참여한 혐의로 공안국에 체포되어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0년 11월 퓨리서치센터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 제한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정부 제한 지수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른비언약교회와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광저우 퉁길리 교회와 시야먼 윈스딩 교회를 포함해 유명한 다수 교회를 폐쇄했다. 중국은 또한 미 국무부에 의해 특히 심각한 종교 자유의 침해를 계속하는 특별 우려 국가로 분류됐다.

이미경 기자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코로나 집단감염 송구”



유튜브 채널 '인터콥미디어'에 최근 게시된 영상에서 최바울 선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인터콥미디어' 영상 캡처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콥 (BTJ)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최 선교사는 18일 인터콥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속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서 검사를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68명이다. 당국은 특히 BTJ 열방센터 미검사가 309명이라며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최 선교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강 내용 중 빌 게이츠 관련 내용은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며 “그 특강에서 저는 DNA백신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RNA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다.

최 선교사가 지난해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다.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다.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다” (“백신으로) DNA를 바꿔서 절대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

예가 된다”고 강연한 것으로 알리며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최 선교사가 지난해 6월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백신이 나온다, 백신도 두 종류. RNA백신 DNA백신. 빌게이츠가 하는 건 다 DNA백신이라. 빌게이츠가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제약회사들한테”라고 했다.

이어 “RNA백신이고 DNA백신이고. RNA백신은 맞아도 DNA백신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빌게이츠가 하는 DNA백신, 왜? 고집스럽게 DNA백신. 고집스럽게. 왜? DNA 조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고집부려? 그냥 RNA백신, 늘 그런 백신은 RNA백신이거든 본래. 이 양반은 꼭 DNA백신을 개발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난리를 피우고 앉아 있다. 수상하잖아요.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더군다나 기독교 증오하는 사람들. 동성결혼은 극단적으로 지지하고. 아, 빌게이츠 그래요. 기독교 증오, 동성결혼은 뭐 그냥 자기 재산 쏟아가면서 지지. 벌써 수상하잖아 하는 짓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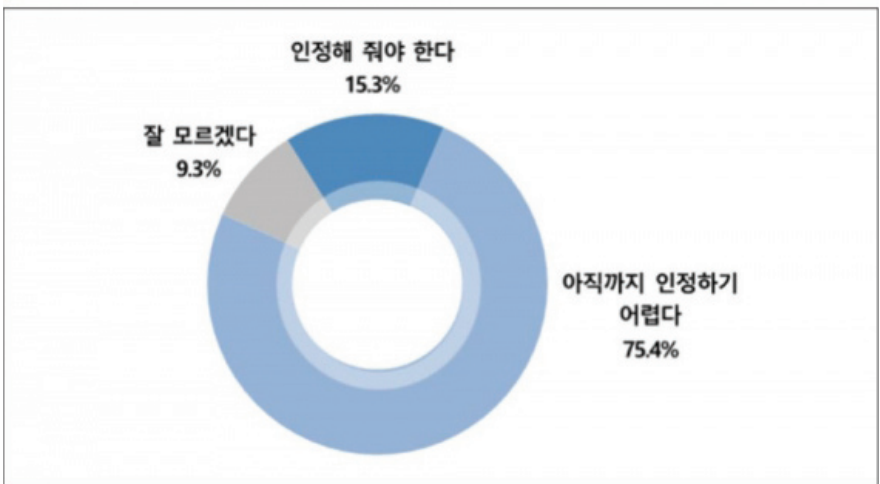
최 선교사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줄거예요. 내년에 언제 주겠지. 그럼 뭐 (백신) 나온다고. 그러면 RNA백신 DNA백신, 아 가격이 만원 이만원 비싸더라도 RNA백신 맞는 게 나야. DNA백신 왜 맞아. 수상한 거 꺼림칙한 거”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개신교인 4명 중 3명 “동성애 인정 어려워”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개신교인 4명 중 3명이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여론조사 기관인 쥘지앤컬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 1천명(교회 출석자 794명, 비출석자 2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것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18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개신교인 중 절대 다수인 75.4%가 동성애를 “아직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들의 비율은 15.3%에 그쳤다.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개신교인(754명)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어서”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24.3%, “종교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응답한 개

신교인(153명)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성소수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개인의 인권문제가” 35.4%, “개인의 성적 취향이어서” 19.4%,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3.3% 순으로 응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조사 대상 개신교인의 41.7%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3%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절반(50.0%)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름만 들은 정도이다”는 35.2%, “전혀 모른다”는 14.9%였다.

한편, 응답자들의 45.3%는 이슬람교 혹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다. 또 이슬람교·이슬람 문화에 대해 41.6%는 “한국의 다른 종교나 문화와 충돌이 예상된다”고, 27.3%는 “개인의 종교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각각 답했다. “이교”(19.9%) “이단”(12.6%)이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인양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셀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열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청년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세백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 영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을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안성희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 Day | Time | Class | Professor |
|-----|--------------------|-----------------------------------|---------------|
| Mon | 7:00 PM - 9:00 PM |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 Jong Yong Kim |
| Tue | 7:00 PM - 9:00 PM |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 James Lee |
| Wed | 8:30 PM - 10:30 PM | 기도학 Theology of Pray | Elijah Kim |
| Thu | 7:00 PM - 9:00 PM |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 David Lee |
| Fri | 8:30 PM - 10:30 PM |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 Rev, Jong Kim |
| Sat | 7:00 PM - 9:00 PM |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 Timothy Song |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책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하지만 성경에선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나는 감정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성경구절은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아담의 두려움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의 두려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 심지어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선 우리에게 명령하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 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통제 능력도 갖지 못한 인간이 스스로를 능력 있는 존재라고 믿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해서 생긴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믿음의 교체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위대한 신앙인이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누리시는 자이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럼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 날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 번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본다.

이사야 41장 2절

인생이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 있고, 살아 있기에 삶의 파도를 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에 의미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해 걱정을 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율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뇌가 몸의 위험을 감지하면 천분의 1초 만에 경고를 보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뇌는 위험을 인식하고 즉시 몸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려움을 찾아본다면 사람들이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폐소 공포증’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이 등이 일반적인 두려움의 현상이다.

교회 안의 학교 이든허스트(Edenhurst)를 축복하며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습니다. 문제는 패배하고 난 후에 초토화된 차세대에 대하여 랍비 요한난은 깊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랍비가 포 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지속하던 3년째 해인 서기 68년에 강경과 열심당의 주도로 방어전을 했지만, 패전 후 대학살이 일어날 것을 요한난 랍비는 예견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모략을 꾸몄습니다. 랍비 요나단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제자들은 슬피 통곡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에 누인 요한난을 성밖에 매장한다며, 제자들이 울면서 함께 성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에서 랍비는 비로소 관에서 일어나 베스파비안 장군을 만났습니다. 요한난은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황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작은 학교를 지어 종교적 가르침과 문화를 계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베스파비안 장군은 자신에 대한 예언에 놀랐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네로가 자살하여 죽게 되었고 정변으로 인하여 황제가 되었던 다른 군인들이 차례로 살해되면서 로마의 원로원은 전쟁 중에 있는 베스파비안을 황제로 선출하였습니다. 69년 그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후임 사령관인 아들 티투스에게 승리 후 학교 “예시바”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 학교는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와 만남과 계획과 투자를 통해 이든허스트 학교(Edenhurst Christian Preschool & Kindergarten)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교회 직원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후대 어린이의 미래를 위하여, 이처럼 교회 안에 학교가 세워짐을 만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 학생들과 학부모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은총이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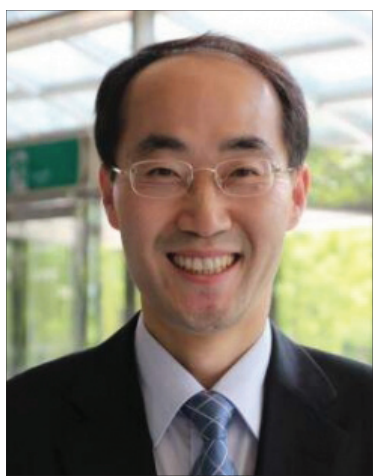
유대인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수하고 부유하며,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로 약 2000년을 유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전통과 언어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랍비 요한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원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붕기가 있었던 서기 66-70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의 나라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서 철저히 패하였고, 성전은 소실되고 문화재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주었습니다.

패배한 국가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황제는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난 벤 자카이의 숨은 역할 때문입니다. 랍비 요한난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유대인이 패배하게 될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와 장기간에 걸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에게는 없었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 양자됨 (adoption)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이요, 우리 편에서는 양자됨이다.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권 (the sonship of Jesus Christ)과 우리의 자녀권 (childrenhood of Christians)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권은 자연적 아들, 본래적 아들 또는 친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권은 법적인 의미에서 양자됨을 통해서 이뤄진다. 즉 자연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들이 아니다. 즉 본성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이 주어지지 않았다. 단지 피조물에 불과했고, 더 나아가서 번역자요, 원수였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의 지위로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은 과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혁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신앙의 복음신앙을 요약해주는 말이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양자됨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7절은 양자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신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 아들로서 완전한 권리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신약성경이 사용하는 양자됨의 심 혹은 양자됨이라는 용어는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됨의 제도와 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가문에 양자가 되면 그는 친자녀와 똑같은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 심지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권리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즉 아버지와의 매우 친밀한 인격

적 사귀고 교통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전능하신 사랑과 깊은 긍휼과 한없는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다 (롬 8:39).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형제권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8:29)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과 아우들이 되었다.

셋째, 유업을 이을 상속권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한다 (고전 3:21).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거룩한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눅이 들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인색하거나, 침체에 빠진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이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누리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5).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

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통치권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자라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성이 남아 있다. 그러하기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히 12:8).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영광과 지위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수준까지 이끌어간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보험사 연하주사면 언제든 담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요한복음 19:26-3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움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작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가상철언(1): 로마 군병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추궁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사형 집행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 가상철언(2): 회개한 강도의 구원 선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달라!'며 빈정대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아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며 죽어 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가상철언(3):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바라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육신의 아들로서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어서 생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로 생각하여 요한의 효도를 받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겨 지극정성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가 예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지옥 길을 고집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상의 효도입니다.

4. 가상철언(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이라'(마 27:4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은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서둘러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 가상철언(5): 신 포도주를 거절하심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해움이라는 스펀지와 비슷한 것을 막대기 끝에 달고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를 몰약 탄 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해 마취제마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기회 앞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가상철언(6):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는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들어

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영광스런 주인공들로 꼭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7. 가상철언(7):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분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 T V 한국 방송 설교 | | 한 국 신 문 설 교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교신문 | 3면 설교 |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 T V 미국 방송 설교 | |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AM1310 기본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 기독교일보 |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For the Spirit & Body

LOLC Inc.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4)

신학적으로 일찍이 ‘미친 자’ 히틀러 본질 꿰뚫었던 본회퍼

본회퍼가 히틀러 ‘미친 자’로 지목한 것은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시작해서가 아니라, 히틀러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잡은 악의 가능태 완성해 현실화했다 판단 때문 교만과 이상숭배가 초래하는 파멸의 역사

◆신학과 몰락: 영화 <다운폴>을 통해 본 나치 독일의 패망

영화 <다운폴>(The Downfall, 2004)은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치고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직전 14일 동안 히틀러와 그 주변인물들, 즉 당시 나치 독일 수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영화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암울하기 그지없다.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군이 등장하는 영화 후반부를 제외한 모든 장면이 벅커에 갇혀 숨은 채 다가오는 파멸을 기다리는 나치 정부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특히 독일의 패망에 완벽하게 절망한 나치 수뇌부와 독일군 사병들의 자살 장면이 연달아 등장하는데,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살 장면이 등장하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히틀러이지만, 히틀러보다 더 강렬한 인상으로 부각되는 인물도 존재한다. 바로 나치 세력의 2인자이자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울리히 마테스 분)이다.

영화에서 괴벨스는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베를린 방어를 위해 민간인들을 대거 동원해 ‘국민돌격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말 그대로 무의미한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시킨다.

이때 SS 소장 빌헬름 뭉게 장군(안드레 헤니케 분)은 무기도 없이 강제로 징집되어 전선에서 몰살당하는 국민돌격대 동원을 멈추라고 요구하나, 괴벨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전 (죽어가는) 국민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할 일을 감추지 않았고, 국민들

은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정권을 위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사는 많은 관객들에게 <다운폴>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이 대사 속에는 당시 나치 수뇌부가 독일 국민을 대하는 광기어린 지배자적 태도와 함께, 나치 정권에 보내온 압도적 지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시 독일 국민들의 운명을 표명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이 말을 한 괴벨스 역시 히틀러가 자살한 바로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어린 자녀 넷을 독살한 뒤 함께 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그 뒤로 영화 속에서는 나치 독일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세워진 독일군 병사들의 연쇄 자살 장면이 이어지는데,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조차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관객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든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1944년 7월 20일, ‘발키리 작전’을 통해 히틀러를 암살하고 베를린을 장악하려 했던 ‘7·20 음모’ 주모자들이 예견했던 그 절망적 패망과 비극이 이 영화의 민간인 몰살과 나치 수뇌부 자살을 통해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다. 이는 본회퍼가 예견한 “미친 자에게 맡겨진 운전대”의 결말이었다.

◆신학과 예견: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은 민족의 운명

독일 패망이 눈앞으로 다가온 1944년 4월, 히틀러는 독일이 아직 확보하고 있던 수용소 전체에 수감된 사형수들의 형 집행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모든 유대인 수용소 수용인원들을 몰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 시기 수많은 독일 반정부 인사들과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했다. 본회



영화 <다운폴>의 주인공, 아돌프 히틀러(브루노 간츠 분).

퍼 역시 이 시기,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했다.

영화 <다운폴>은 본회퍼가 예언한 “미친 자가 붙잡은 운전대”의 비극적 결말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그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쥐어준 동승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에서 국민돌격대로 총알받이가 되어 몰살을 당했던 민간인들은 바로 12년 전인 1933년, 독일 의회 해산과 히틀러 총통 취임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하던 바로 그 유권자들이었다.

본회퍼가 <행위와 존재>를 통해 인간 인식과 그에 관여된 죄성을 비판했던 시기는 히틀러 집권 3년 전인 1929년이다. 이 시기 히틀러와 나치당은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한층 가속화된 독일의 경제 파탄을 틈타 이미 독일 의회 제2당으로 도약해 있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친 자가 붙잡은 운전대”에 대한 본회퍼의 예견은 이미 이 당시부터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회퍼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 민족 내부에도 사라지고 있던 비슷한 유의 광기가 어

떤 식으로 폭발하고 어떤 규모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즉 본회퍼가 히틀러를 ‘미친 자’로 지목한 것은 단순히 그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홀로코스트를 시작해서가 아니라, 히틀러라는 인물이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악의 가능태를 가장 완성된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는 자라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대한 본회퍼의 비판은 애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는 말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독일 정치권은 히틀러의 집권이 가져올 파멸과 비극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독일 철학계 역시 히틀러가 어떤 일을 벌일지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다.

현대 독일 실존철학의 대가 하이데거 같은 이는,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나치 정권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독일 신학계와 반유대주의의 직접적 표적이 된 독일 내 유대인 지식인들은 나치 정권이 초래할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앞날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나치 정권 집권 초기부터 탄압 대상이 되었다.

본회퍼는 처음부터 나치당원들에게 ‘불온한 인사’로 지목되었다. 폴 틸리히는 히틀러 정식 집권 몇 달 전인 1932년 10월, 나치당원들의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히틀러 추종을 이상숭배로 규정하고 아리아 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한 민족 차별 사상을 마귀적인 것으로 선언한 <바르멘 선언>(1934)을 주도했던 칼 바르트는 선언 직후 나치 정권에 의해 독일로부터 영구추방을 당해 고국 스위스로 대피해야 했다.

당대 독일 신학계가, 비록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처럼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주관하는 독일의 운명이 극악한 결말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판단도 아니고, 철학적인 판단도 아닌, 오로지 신학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독일 민족 전반을 지배하고 있던 편협한 교만의 심성, 그리고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 극대화된 우월감을 통해 드러난 자기 우상화의 죄악을 정확히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인간의 원죄적 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해주는 동시에 피조물로서 인간의 올바른 위치를 지정해주는 예리한 기독교적 인간이해 덕분이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망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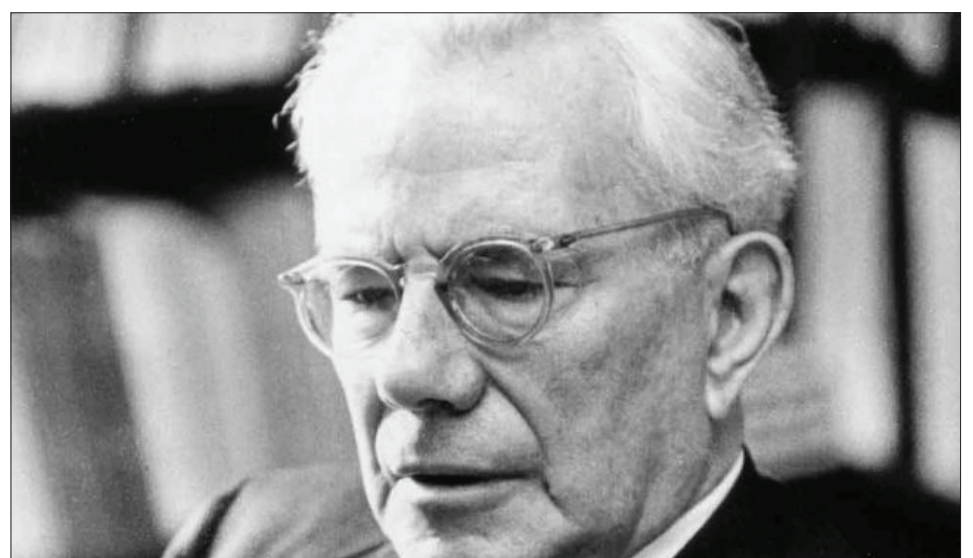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각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영화 <다운폴>의 나치 정권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울리히 마테스 분).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자녀 넷을 살해한 뒤, 아내 마그다 괴벨스와 함께 권총으로 자살한다.



본회퍼의 <행위와 존재>가 출간된 1930년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히틀러. 이 시기 이미 히틀러는 독일 내 거물급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본회퍼와 마찬가지로 나치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독일의 저명한 루터교 신학자, 폴 틸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노래한 클래식을 만나다

클래식 거장들이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펼쳐든 책, 성경



바이블 클래식
김성현
생각의힘 | 308쪽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작곡가들은 종교적인 곡을 썼다!

오페라와 교향곡 같은 세속음악이더라도 성경에서 출발한 음악은 책 속에 포함됐다.

작곡가들이 종교음악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음악의 형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풀어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성경이 유럽의 문화 전반을 떠받치는 두 기둥 중 한 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곡가들에게도 음악은 결과물일 뿐 모든 고민의 출발점은 종교였을지도 예술가들에게도 종교는 의지의 대상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1)는 1921년 6월 한적한 휴양지인 잘츠부르크 인근 마트제로 휴가를 떠났다. 작곡가는 여기서 오라토리오 '야곱의 사다리'를 완성하고 1911년 출간한 자신의 저작 <화성학(Harmonielehre)>도 손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유대인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적힌 포스터가 나붙더니, 급기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을 떠나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다. 작곡가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스스로를 오스트리아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쇤베르크의 확신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기 10년도 전의 일이었다.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던 쇤베르크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Zionism)에 급속하게 경도됐다. 그 즈음 그가 구상했던 종교 곡은 '모세와 불붙은 떨기나무'였다. 당초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형식으로 쓸 생각이었지만, 극적 구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오페라로 작곡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뒤 직접 대본을 썼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던 반유대주의를 고대 이집트의 유대인 박해에 비유하면, 모세의 가나안 행은 유대인의 독립국가 건설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집트(애굽) 탈출'을 의미하는 출애굽기는 유대인에게 종교적 복음이자 정치적 지침이었다.

오페라 '모세와 아론'에는 현대음악의 '예언자' 쇤베르크가 대중과의 관계에서 겪었을 법한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한다. 그는 일찌감치 조성의 법칙을 버리고 무조(無調) 음악과 12음 기법으로 나아갔지만, 그때마다 평단이나 대중의 적대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설교해야 했던 모세와 실험적이고 난해한 음악을 쓰고자 했던 쇤베르크의 처지가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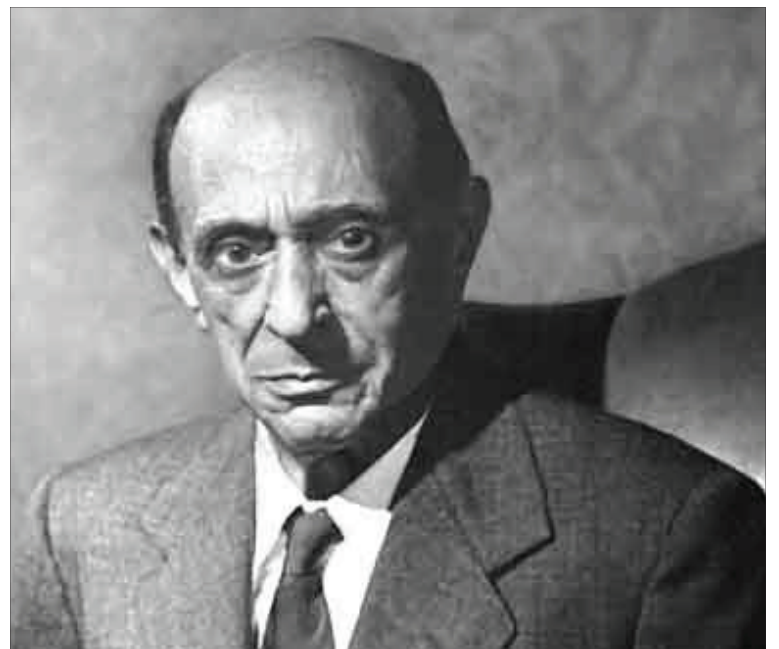
이처럼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준 단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이다. 일간지 클래식 전문 기자가 쓴 이 책은 바흐와 헨델부터 스트바린스키와 번스타인까지, 클래식 거장들이 성경을 주제로 만든 곡들을 소개하고 있다.

성경 속 내용들을 주제로 만든 유명 클래식 작품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작곡가들의 시대 순이 아닌 성경 순서대로 배치했다. 칸타타와 수난곡, 오라토리오 같은 종교음악부터 교향곡과 오페라처럼 세속 음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작품들도 포함시켰다.

그간 종교음악을 작곡가나 시대 별로 소개하는 도서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성경 중심의 정리는 장점으로 다가온다.

저자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음악의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였다.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며 "어쩌면 작곡가들에게도 음악은 결과물일 뿐, 모든 고민의 출발점은 종교였을지도 모른다"고 머리말에 썼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종교 서적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해당 성경 내용을 그린 대가들의 명화를 시작으로, 작곡가의 간략한



아르놀트 쇤베르크.

일생과 시대상을 통해 배경을 설명하고,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해당 성경 내용, 가사 등을 소개한 다음, 초연부터 주요 공연들도 곁들이고 있다. 마지막에는 해당 작품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음반과 영상도 알려준다.

저자는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할 때, 경제적 궁핍과 예술적 자각 사이에서 방황할 때, 작곡가들이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종교적인 곡을 썼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며 "종교에 '귀의(歸依, 돌아가

기낸다)'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에게도 종교는 '돌아가 기대는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식과 종교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주제로 한 여러 클래식 작품을 알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입문서로 적절하다. <바이블 클래식> 같은 작업들을 통해, 음악계에서 '찬반 신세'인 종교음악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이대웅 기자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준 단 한 권의 책,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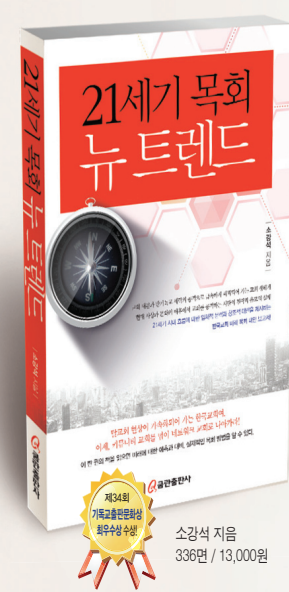
2018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연주하는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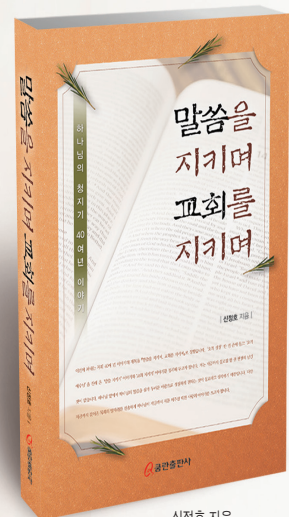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대학교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영신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90원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인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전년도 회장, 총회 간-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학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0원 / 15,000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1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or**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9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ONATA SE

Lease **\$158** +Tax **or** **0 Down** **\$23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954**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6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9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ANTA FE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43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